

“행복한 연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행복은 바로 여기에’ 연변 진입 주제 방문활동 전개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너무 행복합니다.”

“연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큰 킁크랩은 처음입니다. 그 맛이 기대됩니다.”...

중공중앙 선전부 인공발전및교류중심과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공동으로 전개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주제 방문활동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연변에서 있었다.

20여명의 국내 및 재중 외국 언론 기자와 유명 블로거들로 구성된 방문단 일행은 연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글로 연변을 해내외에 알렸다. 그간 방문단 일행은 연변의 민족단결진보, 사회민생보장, 방설경제 발전 등 정황을 료해하고 연변이 이러한 사업에서 취득한 성과들을 다양한 형식과 언어로 카메라와 기사에 담아냈다. 아울러 그들은 변강 민족지역의 사회발전 성과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전시하면서 세시대 중국 인권 이야기의 연변의 장을 엮어냈다.

25일, 연길시에 도착한 방문단 일행은 첫 목적지로 연길시 복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을 찾았다. 일행은 단영사회구역 당위 서기이던 주민위원회 주임인 왕숙청의 안내하에 단영사회구역 ‘붉은 석류의 집’을 둘러보며 이 사회구역에서 최근년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제가 지 공동, 네가지 함께’의 민족융합 사회구역 건설 사업에서 취득한 성과와 경험들을 알아봤다.

단영사회구역은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10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방문단 일행은 부동한 민족이지만 형제자매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데 대해 궁금증을 느끼며 이유를 알아보려고 애썼다. 그들은 수시로 질문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며 주민들과 얘기도 나눠보면서 여러 민족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료해했다. 또한 여러 민족 주민들과 함께 〈중화민족 한가족〉, 〈붉은 해 변강비추네〉 등 장단에 맞춰 춤도 추면서 농후한 민족단결 분위기를 현장에서 실감했다.



▲ 서예체험실에서 붓글씨 쓰기를 배우고 있는 장면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자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은 화려한 불빛들로 도심 속의 전래동화를 방불케 했다. 방문단 일행은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민속풍정이 짙은 전통 가옥을 거닐며 기념사진을 남겼다. 중앙방송국 토이기 기자 자퍼 구사르는 “조선족 민족복장은 아름답고 입기에도 편합니다. 이곳은 너무 아름답고 민속풍정이 짙은 것 같습니다.”라고 감탄했다.

다음날인 26일, 방문단 일행은 훈춘시를 찾아 훈춘시의 다원화 매력과 문화 융합을 감수했다.

훈춘시 신안가두 장안사회구역은 2017년 전국 두가지 언어(향, 촌) 사회구역 시범 장소로 선정, 올해에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전국 두가지 언어 학습 특색실천기지’로 명명되었다.

방문단 일행은 장안사회구역 2층에 마련된 전지, 장기, 서예 등 중화민족 문화체험실을 둘러봤다. 전지에 관심이 있는 성원들은 현장 지도교원의 지도하에 전지 작품을 오려보기도 하고 서예체험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붓글씨를 써보면서 중화민족 전통문화의

다양함과 풍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몇몇 주민 가정을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의 일상 생활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료해하고 느껴보았다.

훈춘 동북아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 위치한 킁크랩전시관을 찾은 방문단 일행은 ‘킁크랩왕국’을 방불케 하는 전시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일행은 싱싱한 킁크랩을 관찰하고 킁크랩의 품종과 습성에 대해 료해했다. 해마다 훈춘통상구를 통해 수입되는 킁크랩이 150만마리를 초과하고 있다는 소개에 그들은 연신 감탄했다.

중앙라디오텔레비존방송국 일본어 방송 기자 미키코 나루미는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서 “이곳에 오기 전까지 ‘훈춘’이라는 도시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활발한 킁크랩 무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오늘 킁크랩전시관까지 참관하는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킁크랩을 비롯한 해산물의 가성비도 좋은 것 같다. 훈춘에서 또 킁크랩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틱톡 플랫폼에서 200여만명의 팬

을 보유한 사회, 시사, 정치 영역의 유명 블로거 ‘관지단(关之檀)’은 고향이 연변이다. 이번 ‘행복은 바로 여기에’ 주제 방문활동에 방문단 일행으로 참가한 그는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문단 일행은 연변대학 맞은편에 위치한 ‘왕흥벽’을 비롯해 안도현 장백산설령풍경구 등 장소를 돌아보고 여러 민족 군중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을 탐방함과 아울러 현장에서 민설문화를 물임식으로 체험하면서 각 플랫폼에서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연변의 행복한 모습과 새로운 기상들을 전시했다.

“연변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늑한 도시입니다. 연변의 발전 성과는 참으로 사람들을 감탄케 합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행복한 연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문단 일행의 얼굴에는 저마다 기쁨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 리전기자



연변 의료보험 결제 ‘얼굴인식’ 시대 진입

지난 8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 의료보장국에서는 ‘얼굴인식’ 결제 방식을 주내 여러 의료보험 지정 약방과 의료기구에 보급시키고 스마트 의료보장 시스템을 계속 승격해 의료보장의 편민봉사를 부단히 최적화했다. 주의의료보장국에서는 전 주 2급과 3급 지정 의료기구에 특속 해당 서비스를 개통하여 의료보험 ‘얼굴결제’가 전 주에 전면적으로 보급되도록 추동할 예정이다.

‘얼굴인식’ 기술을 리용한 의료보험 결제 방식은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인증에 합격된 의료보장 업무 종합서비스 단말기를 담체로 의료보험 코드를 매개체로 ‘얼굴인식 + 실명제 + 실제사람’이라는 보안 검증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인식 방식으로 진료 예약, 의료비 지불, 의료보험 결제 등 여러가지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료보장 부문에서 의료보장 서비스의 편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의 심층융합을 촉진하는 하나의 새로운 조치이다.

보험 가입자는 ‘얼굴인식’을 통해 결제하면 카드나 휴대전화를 지닐 필요 없이 의료보험 결산을 받을 수 있어 진찰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동시에 의료보험 결제 과정에서 신분 도용 등 위험을 방지하여 의료보험 서비스의 체험감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게 된다.

11월 24일까지 연변에서는 도합 101대의 의료보험 ‘얼굴인식’ 단말기를 전 주 66개 기층 지정 의료기구와 34개 지정 소매약방에 투입했다. ‘얼굴인식’을 통해 의료보험을 결제한 인원은 연인수로 6만 3,000여명이다.

/ 길림일보

농민공 봉사 보장 일층 강화한다

10개 부문 의견 발표

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은 연합으로 〈농민공 봉사 보장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농민공의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과 시민화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농민공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외출 취업과 당지 근처 취업을 병행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취업 경로를 넓힌다. 장소, 금융, 세수 등 정책을 최적화하고 농민공의 귀향 창업을 지지한다. 농민공의 구직 년원과 기능 강습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업종 기업, 대학교, 공공실습훈련기지 등 역할을 발휘하여 농민공의 기능 제고를 강화한다.

/ 인민일보

“사회구역의 ‘수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장림사회구역, 구역내 자원봉사자들에 감사 인사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사회구역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협력 없었으면 사회구역 사업을 원만히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활동을 조직해 그들의 로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합니다.” 연길시 건곤가두 장림사회구역 부주임 최진의 말이다.

26일 연길시 건곤가두 장림사회구역, 웃길을 파고드는 초겨울 추위도 잊게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 한창이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정성 들어 준비한 방한 용품을 사회구역 5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해주었다.

료해에 따르면 장림사회구역에서는 장기간 사회구역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이를 지지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모자와 장갑, 보온물컵 등 방한 용품을 전해주어 어려울 동안 따뜻한 나눔과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가

하고 지지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최진은 “이분들은 다년간 사회구역의 민족단결진보사업, 환경미화사업, 애심공익활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활동마다 앞장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사회구역과 제때에 련계하며 사회구역의 발전을 위해 계속 선진모범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사회구역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구역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사회구역의 일원으로서 사회구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할 곳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리전기자

연길백화 직원들 무상헌혈로 사랑 모아



▲ 헌혈 장면 / 사진 김홍석

26일, 연길백화청사주식유한회사 직원들은 무상헌혈 활동에 참가해 름상환자들에게 급히 필요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공공건강 사업을 지원했다.

당일 오전, 연길백화청사의 72명 직원들은 연변적십자중심혈액소를 찾아 의료일꾼의 안내하에 헌혈 등록, 신체검사, 혈액검사 등 헌혈 준비 과정을 질서 있게 마치고 도합 2만 1,600밀리리터를 헌혈했다.

연변적십자중심혈액소 헌혈자모집과 과장 황경량은 “최근 여러 기업과 사업단위 직원들이 잇달아 무상헌혈에 참여해 탐상용 혈액이 긴장한 국면

을 효과적으로 완회시켰다. 이는 사회 각계 일꾼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다고 동시에 당지의 혈액 재고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하면서 “현재 연변의 혈액 재고량은 여전히 부족해 일상 및 긴급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더 많은 사회조직과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사업에 일조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헌혈에 참가한 연길백화청사 직원들은 “처음에는 약간 긴장되었지만 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 리전기자

뢰봉반 자원봉사자들 무상헌혈 자원봉사 활동

최근 연길시 복산가두 뢰봉반 자원봉사자들은 연변적십자중심혈액소를 찾아 무상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 뢰봉반 자원봉사자들은 붉은색 조끼를 입고 사업일꾼의 안내하에 헌혈 절차에 따라 의무헌혈 등록표를 참답게 작성하고 혈액 선별을 진행했다. 이어 신체검사에 합격되고 헌혈 조건에 부합된 것을 확인한 후 소매를 걷어올리고 헌혈을 했다.

수년간 복산가두 뢰봉반은 시종 ‘뢰봉정신을 고양하고 시대의 선봉이 되자’를 행동 지침으로 무상헌혈을 장기적으로 견지하여 13년 동안 도합 6만 3,000밀리리터를 헌혈했다.

이처럼 뢰봉반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우애, 호조, 진보’의 자원봉사자 정신을 견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뢰봉정신을 더욱 참답게 학습하여 사회정신문명 건설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왔다.

/ 리성복특약기자



▲ 300밀리리터, 400밀리리터... 하나 또 하나의 애심으로 채워지는 혈액주머니들.